감사의 프레임 (빌 4:11-13)

I. 말씀 나누기 (10분) -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으신 후 말씀을 나눕니다.

1. 삶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행복을 찾고 어떤 이는 불평을 찾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의 보고)

행복은 그 환경이 나 상황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 곧 감사의 프레임이냐 불평의 프레임이냐, 긍정의 프레임이냐 부정의 프레임이냐의 문제입니다.

2. 감사의 프레임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13절)

이 감사나 긍정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했고, 자족했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주시는 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13절)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타고르)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슈바이처)

3.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교의식과 욕심입니다. 남과 비교하다보면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4.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3절)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나쁜 환경들, 안 좋은 조건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의 프레임..... 이것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곧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II. 삶의 적용 (25분)

1. 성도님이 최근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감사의 프레임(또는 불평의 프레임)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올해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했던 일은 무엇입니까?